APCTP 과학문화사업 11년

DOI: 10.3938/PhiT.25.058

김 상 옥

Eleven Years of Science Communication in the Asia Pacific Center for Theoretical Physics

Sang-Wook KIM

In 2005, the Asia Pacific Center for Theoretical Physics (APCTP) published an on-line web-journal <Crossroads> to show its vision for science, the future, and humanity. The web-journal aims to build a network for scientists in the Asia-Pacific region, expand the base of science, and popularize science through communication between scientists and the public. The APCTP science communication team has not only managed the web-journal but also taken part in many science cultural activities to publicize science and to communicate with the public. Here, we summarize what has been achieved.

APCTP의 과학문화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APCTP의 로버트 러플린 소장은 한국에서 차별적이고 독보적인 과학문화 콘텐츠를 생산할 웹진 창간을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를 편집장으로, 포스텍 박상준 교수, 가천대 국형태 교수, 부산대 김상옥 교수가 편집위원으로 참여하여 '크로스로드(<http://crossroads.apctp.org>)'라는 월간웹진이 발간된다. 크로스로드라는 이름은 이 웹진이 과학과 인문사회

저자약력

김상옥 교수는 카이스트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포스텍과 카이스트에서 박사 후 연구원 생활을 하고 독일 막스 플랑크연구소 방문 연구원, 서울대학교 연구 조교수를 거쳐 2004년부터 부산대학교 물리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9년 일본 JSPS 초청 동경대학교 방문교수, 2010년 오스트리아 인스브르크 양자정보 및 양자광학연구소 방문교수를 역임한 바 있으며, 주로 양자과학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김상옥의 과학공부>, <과학수다 1,2>, <과학하고 앉아있네 3,4> 등의 대중서적을 출간하고 여러 언론 매체에 칼럼을 연재하는 등 과학 대중화에 관심이 많다. 현재 APCTP 과학문화위원장을 맡고 있다. (swkim0412@pusan.ac.kr)

Fig. 1. The first page of web journal <Crossroads> [웹진 <크로스로드> 첫 페이지].

Fig. 2. Books published by APCTP [APCTP에서 발간한 책들].

및 예술분야가 만나는 '교차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중고생뿐만 아니라 성인 및 고급 독자를 주타깃으로 설정하였다. 지금은 통섭이나 융합이 유행이지만, 당시로서 대단히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시도였다.

크로스로드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코너를 시도했다. 정기적인

Fig. 3. Science communication school [과학커뮤니케이션 스쿨].

칼럼이나 에세이, 시의적절한 특집 등은 크로스로드의 큰 뼈대였다. 이기진의 교수의 <보통날의 물리학>, 김범준 교수의 <세상물정의 물리학>, 이강영 교수의 <불멸의 원자>, 김상욱 교수의 <김상욱의 과학공부> 등은 크로스로드의 칼럼, 글 가운데 실린 내용의 일부가 모여 책으로 출판된 경우다. 두 권의 과학 책을 대결시켜 강연과 토론을 진행한 ‘책대결’ 기획, 전문가를 모시고 3명의 고정패널이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과학수다’ 등은 각각 <책대결>, <과학수다 1,2>라는 책으로 정리되어 출판되었다. 이 외에도 <상대성 이론 그후 100년>, <과학해서 행복한 사람들>, <과학이 나를 부른다>, <우리에게 과학이란 무엇인가> 등의 단행본도 출판하였다.

특히, 크로스로드의 **Sci-Fi** 쪽지는 당시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적정 원고료를 지급하며 운영된 SF 코너이자 SF 작가 등용문이었다. 2000년대 한국문학사의 장르문학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라 자부한다. 이 코너를 통해 많은 신인 SF 작가들이 발굴되었다. Sci-Fi에 실린 글을 모아 <얼터너티브 드림> (황금가지), <애플루트 바다> (해토), <죽은 자들에게 고하라> (해토), <목격담 UFO는 어디서 오는가> (사이언티카), <연애소설

Fig. 4. Science lectures in library [도서관 속의 과학강연].

읽는 로봇> (사이언티카), <인공지능 크릭스-66> (케포이북스) 등 모두 6권의 단행본이 발간되었다. 2015년에는 10주년을 맞아 국내 SF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기면 기념포럼을 개최했으며, 그 결과물을 단행본으로 묶어 <한국 창작 SF의 거의 모든 것>을 출간하였다.

<크로스로드>라는 웹진 발간을 목적으로 시작된 과학문화 사업이었지만, 점차 그 활동영역이 넓어지게 된다. 2006년부터 시작된 ‘**과학 커뮤니케이션 스쿨**’은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논리적인 글쓰기 및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교육받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올해까지 16회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2박 3일간 숙식을 같이 하며 주제 토론, 글쓰기, 팀별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국내에서 이런 목적으로 진행된 유일한 프로그램이며, 이수자 가운데 과학 커뮤니케이션 관련 일을 하는 사람도 생겨났다.

과학강연은 과학문화사업의 기본이다. 과학문화팀에서도 초기부터 과학강연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였다. 문제는 이런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과학강연을 자주 접할 수 없는 중소도시 지역으로 직접 과학자들이 찾아가는 방식의 강연을 기획하게 되었다. 지역에서 이런

Fig. 5. Workshop on science, culture and art [과학과 문화예술 창작 워크숍].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곳은 바로 도서관이었다. 도서관은 장소만 제공하고 연사섭외하고 강연을 하는 것까지 과학문화사업팀에서 책임을 졌다. 2005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78회에 걸쳐 ‘도서관 속의 과학강연’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2010년부터는 비슷한 성격의 ‘10월의 하늘’ 행사가 과학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되어 이 프로그램을 기쁜 마음으로 종료할 수 있었다.

과학강연은 과학자들이 일반대중을 직접 만나 과학을 전하는 방식의 소통이다. 과학자들은 일반인과 잘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회 자체는 중요하다. 하지만 대중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과학자의 수가 충분하지 않기에 이렇게 대중을 만나는 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소통의 다른 방식을 논의하던 중 일반대중과 일상적으로 대면하는 예술창작자들을 통해 소통을 하는 것은 어떨까하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는 과학자들과 예술가라는 두 집단 간의 소통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기회이기도 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1년에 두 차례씩 10회에 걸쳐 ‘과학과 문화예술 창작 워크숍’을 진행해왔다. 행사는 2박 3일 소백산 천문대에서 강연, 토론, 산행, 친목의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이제 문화예술계에서는 제법 알려진 행사로 자리 잡았다. 행사에 참여한 주요 창작자들로 은희경(작가), 김소연(시인), 백영옥(작가), 김탁환(작

Fig. 6. 2015 best science books 10 [2015년 올해의 과학도서 목록].

가), 마리킴(미술가), 윤푸빛(마임전문가), 박상옥(감독), 류준영(기자), 조혜연(프로기사), 백정숙(만화평론가), 이충호(만화가), 노의성(출판편집자) 등이 있다.

인문학과의 소통은 문화예술 분야와 다른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2014년부터 6차례에 걸쳐 ‘초학제 모임’을 진행해왔다. 과학자와 인문학자가 한 자리에 모여 특정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그 결과물을 정리하여 크로스로드에 올리거나 책으로 출판하는 방식이었다. 주제로는 빅히스토리의 복잡성, 복제, 한국창작 SF, 과학소통, 로봇, 과학글쓰기 등이었으며, <다섯갈래 길로 보는 복제>, <한국 창작 SF의 거의 모든 것>, <로봇> 등의 책으로 정리가 되어 출판되었다.

일반대중의 입장에서 과학을 접하는 최선의 방법은 과학대중서적을 읽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과학문화사업팀은 초기부터 과학책 출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2005년부터 매년 ‘APCTP 선정 올해의 과학도서’ 10권을 선정하여 발표해왔다. 2015년 그 10주년을 맞아 ‘과학고전 50선’을 선정하여 발표했으며, 2016년 1년 동안 고전 50권의 서평을 매주 하나씩 인터넷매체 프리시안에 게재하였다. 그 글들은 묶여서 책으로 출판될 예정이다.

2014년부터는 올해의 과학으로 선정된 10권의 책을 강연으로 하는 ‘올해의 과학도서 강연’ 시리즈를 운용 중이다. 2013년 연말 선정된 10권의 책을 이듬해 서울 서대문자연사 박물관에서 10번의 강연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강연자는 주로 저자나 번역가가 하게 되며 부득이한 경우 책과 관련한 전문가가 한다. 강연회가 끝난 후 강연자와 참석자가 함께 하는 친목의 자리도 이 프로그램의 명물이 되었다. 지금까지 모두 30회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APCTP는 포항에 위치하고 있어 포항시에서 진행되는 과학문화행사를 주관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4년부터 매년 치러지는 ‘포항가족과학축제’는 명실상부한 포항시의 대표적 행사로 자리잡았다. 특히 2016년 13회 포항가족과학축제의 경우는 제16회 경북과학축전, 제18회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와 함께 개최되어 13만 명의 시민이 방문하기도 했다. 또

Fig. 7. Public lectures on the best science books 10 (Seodaemun Museum of Natural History) [올해의 과학도서 강연(서대문 자연사박물관)].

한 2008년부터 매년 2회씩 진행하는 'Science in City Hall'은 독일 막스플랑크-복잡계 물리연구소에서 현대 과학의 연구 성과를 일반대중들에게 널리 소개하고자 운영 중인 과학문화행사를 벤치마킹하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포항시에서 개최되는 행사다. 과학+교육+예술+체험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과학문화 행사다.

크로스로드에 몇 차례의 인적 개편이 있었다. 정재승 교수에 이어 국형태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프레시안 강양구 기자, 이권우 평론가 등이 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는 김상욱 교수가 위원장으로, 과학저술가 이명현 박사, 포스텍 박상준 교수, 한양대 손승우 교수가 위원을 맡고

Fig. 8. Pohang science festival [포항가족과학축제].

있다.

과학은 사회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과학자들에게는 그들이 하는 연구를 시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과학은 올바른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데 꼭 필요하다. 시민들이 과학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과학은 교양이다. 인간이 이루어낸 가장 가치 있는 지식체계이기도 하다. APCTP는 이론물리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연구를 통해 알아낸 과학의 지식을 많은 사람과 나누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APCTP 역사 20년에 있어 과학문화활동의 11년을 정리해보았다. 조직이나 예산 규모에 비하면 국내 그 어느 곳보다 과학문화활동을 활발히 진행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다. APCTP 30주년에는 더욱 추가된 내용으로 지면을 채울 수 있기를 기원한다.